한국언론학보
2021년 65권 1호 71~103쪽
https://doi.org/10.20879/kjjcs.2021.65.1.071
http://www.comm.or.kr

한국의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한 고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담론을 중심으로

김범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코레아노폰 연구센터 연구원
조영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교수

A Study on Banal Racism in South Korea

Focusing on News Reports on Multi-Cultural Children*

Beom seon Kim**
Research Fellow, Center for Koreanophon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unghan Cho***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banal racism' in South Korea that is being practiced routinely and repeatedly, so being constructed into common sense and norms, by analyzing news discourses about 'multicultural children', i.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 doing, it highlights the necessity of approaching the discourses of discrimination, distinction, as well as tolerance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from a perspective of racism. In order to examine news reports on multicultural children, it collects news articles from "Chosun Ilbo", "JoongAng Ilbo",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from 2008 to 2018. Based on the collected news articles, this study analyzed how new racist discourses about multicultural children are constructed. It employs the method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understand the effects and meanings produced by the news reports as well as the societal responses to the anti-multicultural movements and emo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ree major aspects of the Korean news media discourses on multicultural children were identified. The first is the categorization of these children by referring to them under the name of "multiculture," which consequently makes them the object of division and discrimination through the method of classification. Second, these children are called 'global talent resources' through a method of essentialization, in which their possibilities and potentials are only made possible through th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본 연구는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fanxuan.b@gmail.com

*** choy@hufs.ac.kr, corresponding author

characteristics of groups, not individuals. The third is to regard them as origins of problems, such as reverse discrimin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safety, equality and freedom of Korean society. News reports about these children consist of a language of protection, support and tolerance, but at the same time, continue to produce classification and discrimin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we Koreans" and "they multiculture." These news discourses exemplifies neo-racism under the name of banality that further constitutes a common sense of separation and discrimination based on the differences of culture, customs, language,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s that banal racism as an analytic term can be utilized for revealing linguistic and institutional distinction, prejudice, as well as violence that repeatedly and habitually otherizes and marginalizes new others and minorities. Through the frame of banal racism, this study demonstrates not only that the term 'multi-culture' can be racist, but also that it is imperative to provide a point of criticism on new racism in various movements, such as anti-multiculturalism, anti-refugee and anti-female in Korean society. The examination of banal racism urges Korean society not only to reflect on the categories of 'racial-ness' critically but also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dichotomy of "we Koreans" and "they multiculture."

Keywords: Neo-racism,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children, banal racism, Anti-Multiculture

1. 들어가며: 한국에서 '다문화'의 의미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결혼이주여성 마포포)[1)]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되고 상식과 규범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일상적인 인종주의(banal racism)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뉴스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형성하고 있는 차별, 구별 그리고 배려의 담론을 인종주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실천되고 제도화되는 한국 사회의 신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의 지점을 마련하고 동시에 한국사회에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는 지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2000년 이후 외국인 거주자 100만 명이 넘는 이른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입이 시작된 이후 한국 사회에 저출산 ·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구, 노동력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의 이주 및 정주를 받아들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였고 이들과 이룬 가정을 '다문화가정[2)]'이라고 부르며 정부의 주요 정책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단일민족주의', '순혈주의' 등의 자민족 중심 이데올로기 등 문화적 차원에서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서구 맥락에서 비롯된 다문화 개념을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모순들을 가져왔다(김영옥, 2007). 한국의 다문화 개념은 관주도의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국가중심주의문화를 지향하였고, 위로부터의 다문화 정책이 되고 말았다(김정선, 2010; 박천응, 2012). 또한 다문화 정책도 이주민의 시민권 문제와 가족 당사자의 문제를 배제한 채 가족유지와 아동양육만을 강조함으로써 '통합'보다는 '인구대처'의 성격이 강하였다(김희정, 2017; 박천응, 2012).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관주도형 다문화 정책은 여전히 가부장적 순혈주의에 근거한 동화주의 원칙을 고수한 채 당사자인 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족은 정책 결정 및 주요 사회 담론 속에서 주변화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주민,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대할 때에 출신국의 소득 수준에 따라 편견과 차별을 나타낸다(이종일, 2012). 특히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의 경우

1) 염운옥(2019, 317쪽)에서 재인용.

2) 행정자치부에서는 '다문화 가구'라고 칭한다. 이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가구(다문화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이다.

비백인이며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결혼'과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차별적인 표현과 혐오발언의 표적이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문화가족은 취약 계층과 동일시되고 사회적 낙인이 만들어지고, "'다문화'라는 특정적인 호명은…'차별'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었다(김현미, 2014, 212쪽). 이들에 대한 혐오, 반감의 행태는 사적인 공간뿐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지하는 반외국인 시위가 일어났으며, 정부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단하고 한국 최초의 귀화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 이자스민의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시위까지 등장했다(엄한진, 2016; Kim, 2018). 또한 온라인에서 다문화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반(反)다문화 커뮤니티도 생겨났다(김성윤, 2018; 전의령, 2020; 황경아, 2017). 그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인종과 계층의 위계적 질서를 작동시키는 은밀한 기제"로서 사회적 낙인과 함께 차별이 작동하게 되었다(황경아, 2017, 149쪽).

본 논문은 이처럼 이주민, 다문화가정, 그리고 난민 등 한국에 이주·정착한 자들에 대한 (혹은 새로운 타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혐오, 편견, 그리고 차별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현저하게 목도되는 가운데, 한국 주류 사회는 자신을 인종차별과는 거리가 있거나 심지어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현상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염운옥의 지적처럼 "한국인은 인종차별의 피해자로만 자리매김됐고, 한국인이 외국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2019, 4쪽). 2000년대 이후 실시된 다문화 정책 및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는 여전히 다문화 1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쉽게 변화되지 않은 동시에 한국 주류집단의 불평과 분노가 새롭게 더해지는 차별에 노출된다.

본 연구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상에서 실천되고, 비폭력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선의의 외형으로 나타나는 인종주의에 대한 주목, 성찰, 그리고 대안을 위해서 인종주의 일상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상의 영역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실천되는 언어, 감정, 그리고 규범의 형성과 제도화 과정을 '일상적 인종주의'(banal racism)라는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상적 인종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을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고 구분 짓기,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는 본질화, 그리고 특정 집단을 문제의 원인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문제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에세드(Essed)의 지적대로 기존의 인종주의 연구는 "일상적인 표현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당연하게 여기게 된 많은 의미와 일상적인 관행을 문제화"할 필요가 있다(1991, p. vii). 한국에서 인종주의는 물리적 폭력 또는 "국가사회주의나 네오나치와 같은 극단적 형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타자에 대한 일상적인 배제, 차별, 그리고 구분의 실천, 제

도화 그리고 담론을 놓치게 한다(최대희, 2018, 62쪽). 본 논문은 한국의 일상적 인종주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문화자녀에 대한 뉴스 미디어를 분석하였다. 다문화자녀 대부분의 국적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뉴스 담론은 결혼이주자인 다문화 1세대에 대한 차별과 구분의 시선을 반복할 뿐 아니라 선의 및 시혜의 목소리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본질화 및 문제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뉴스 미디어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주류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들의 자녀 세대에 대한 규범, 지식, 그리고 인식에 영향을 주는 효과 및 의미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담론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일상적 인종주의는 새로운 타자 및 소수자들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타자화하고 주변화시키는 언어적 그리고 제도적 구분, 편견 그리고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한국 사회와 신인종주의(neo-racism)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역설적으로 여러 국가 그리고 지역에서 인종주의를 지지하는 움직임과 이와 동시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목도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이슬람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이 서구와 비서구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자극하며 상대방에 대한 인종주의적 담화로 발전하였다. 유럽에서도 1990년대부터 구 동유럽 국가 및 민족들 간의 박해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와 난민들에 대한 불평, 불편함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이 표출되는 가운데 인종주의적 정서 및 폭력의 모습이 나타난다(Haldrup et al., 2006). 동시에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화는 대부분의 국가와 사회에 경제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를 극대화함으로써 인종주의 확산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같이 세계화, 탈민족화 또는 세계시민주의라는 낭만적 기대가 섞인 전지구적 변화 양상은 역설적으로 각 사회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종주의적 가치, 담화, 태도 그리고 제도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리바르(Balibar, 1991a)는 "현대 세상에서 인종주의는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의 인종주의는 민족주의 안에서 구체적인 접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991a, p. 9). 한국 사회 역시 1990년대 시작된 세계화 선언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제한된 이주를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는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민 우선이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형태의 혐오 발언, 소수자 차별 그리고 난민 반대 운동 등 인종주의 정서가 구체화되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신지영, 2020; 전의령, 2020).

한국 사회는 때로는 스스로를 인종차별의 피해자로 여기거나, 인종차별과는 무관한 사회로 여기거나 인종주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인을 하거나, 정치적 옳음을 과시하는 위선적인 태도라고 역으로 비난한다(김성윤, 2018). 반다문화와 반난민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인종주의 혐오에서 거리를 두기 위하여 차이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국민과 안전을 중시할 뿐 차별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Jun, 2019). 김지혜의 표현대로 한국에서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을 쉽게 발견할 뿐이다(2019, 11쪽).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에 대한 부인 및 역비난의 논리는 우선 고전적 인종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고전적 인종주의는 이른바 피부색 등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인류의 구별 및 서열을 바탕으로 한 차별을 의미한다.[3] 고전적 인종주의의 기원은 근대 시기에 서구가 비서구 지역을 정복하고 비서구인들을 지배하면서 타인을 규정 짓기 시작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인종주의 발생에 있어 과학과 미학이 이론적 기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식물의 분류학과 그리스 미학이 백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적 사유를 구성하게 된다(염운옥, 2019).[4] 서구의 제국 확장을 통하여 인종주의는 피부색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과 위계, 그리고 인종적으로 우월한 집단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발전하게 된다. 고전적 인종주의에 따르면 황인종은 백인종과 대비되는 열등한 인종으로 취급받게 되고,[5] 조선 개화기 및 식민지 시기 지식인들은 사회적 다윈주의를 받아들여 조선 민족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동시에 일본 제국의 논리를 정당화하기도 하였다(박경태, 2009; Tikhonov, 2016).[6] 고전적 인종주의의 논리에 따라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인종주의자의 피해자이거나, 동일한 인종인 동남아 출신 다문화 가족 또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은 인종주의가 아니라는 항변을 발견하게 된다. "피부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므로 '담론적 탈인종화'"라는 논리로 한국 사회는 인종차별과는 무관하다는 환상을 유지한다(김현미, 2020, 298쪽).

한국 사회의 부인의 논리는 극단적 또는 폭력적 형태의 인종주의에 대한 전제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극단적 인종주의는 독일의 나치 집단에서 비롯된 유대인 학살, 90년대 동유럽에서 진

3) 고모리 요이치 (小森陽一,2015)는 타자의 생물학적 차이에 준거하는 협의의 인종차별주의를 광의의 인종주의와 구별한다.

4) 염운옥(2019)은 린네의 분류학을 인종론의 씨줄이라면 빙켈만의 미학은 날줄로 서술하면서, 두 개의 인식론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인종을 분류하는 이론의 시발점이라고 지목한다.

5) 키벅(Keevak, 2016)에 따르면 황색인이라는 개념은 17-19세기에 사이에 만들어진 인종적 세계 지도의 결과로, 세계인을 인종화하여 위계화하려는 강박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6) 박경태(2009)는 자강파 지식인이 적자생존의 논리를 받아들여 세상을 인종 간 대결구도로 바라보았다고 지적한다.

행된 인종말살분쟁과 같은 경우를 가리키고(박경태, 2009), 필연적으로 대상을 향한 폭동, 상해, 약탈 그리고 최소한 무차별적 욕설과 크고 작은 폭력 행사를 수반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종주의는 주로 뉴스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재현을 통하여 상상되는 동시에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폭력 및 욕설에 대한 경험과 경험담으로 정형화되고 개인적인 신념으로 굳어진다.[7] 한국의 반다문화 운동도 이러한 정서를 공유하는데 이들에게 인종주의는 "폭력적 언행을 동반한 인종차별과 관련되지만, 일군의 사람들을 정형화, 종별화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김성윤, 2018, 106쪽). 한국 사회는 육체적 폭력이 부재한 안전한 사회이며,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폭력 및 욕설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주체로 상상된다. 따라서 극단적 인종주의가 부재한 한국에서 인종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1세기에 목도하는 인종주의는 고전적인 인종주의나 극단적 형태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 또는 신인종주의라고 불리는 흐름이다.[8] 신인종주의는 피부색이나 유전적인 차이보다 문화적 특색과 차이에 주목하고,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의 주류 집단이 소수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발리바르는 신인종주의를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의 극복 가능성이 지배적인 주제인 인종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인종 없는 인종주의라는 프레임"이라고 설명한다(1991b, p. 21). 신인종주의는 유전적 특성 대신 문화가 본질적 차이를 낳는다고 주장하면서 각자의 나라에서 자기 문화를 지키며 살자라고 주장한다(박경태, 2009). 한국 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그리고 반난민 운동 역시 "문화 간의 차이"를 기초로 삼아 "생물학적 요소가 아닌 종교와 습속 및 문화적 요소"들을 강조한다(김성윤, 2018, 111쪽). 이러한 흐름은 "인종 대신 특정 집단의 언어, 종교나 문화, 의식주, 습관 등 '문화적 기표'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신인종주의'"라 할 수 있다(김현미, 2020, 286쪽).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신인종주의의 특성은 일상의 영역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실천되는 언어, 감정, 그리고 규범의 형성과 제도화 과정인데, 이러한 특성은 '일상적 인종주의'(banal racism)라 명명할 수 있다.[9] 일상적 인종주의는 "인종주의의 상대적으로 덜 극적이지만 동시에

---

7) 유사하게 김성윤도 "'인종차별하지 않는 반다문화 정서'는 해외여행 경험이 빈번한 20대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한다(2018, 96쪽).

8) 21세기 인종주의는 신인종주의(new racism 또는 neo-racism), 문화적 인종주의(cultural racism), 그리고 인종 없는 인종주의(racism without race)라고 부른다(Balibar, 1991b; 김현미, 2020; 박경태, 2009; 염윤옥, 2019)

9) 일상적 인종주의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은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여기서는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미뿐 아니라 주목받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규범이 되어 가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banal racism으로 표현한다. 일상성(banal)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일상적 민족주의' (banal nationalism) 개념을 제안한 빌리히(Billig, 1995)의 연구에서 착안한다. 참고로 노블(Noble, 2005)도 banal rac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에세드(Essed, 1991)와 김유

더 만연한 경험"에 주목하면서(Noble, 2005, p. 112), "체계적이며 반복적이고 친근한 실천… 사회적 태도와 행위, 그리고 누적된 실체화"(Essed, 1991, p. 3)를 포함한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실천은 직접적인 욕설이나 육체적인 가해를 동반하기보다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한 집단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상식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특히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 구분, 구별과 차별은 일상의 대면, 담화, 그리고 행위 속에서 행하여지고, 여러 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제도화된다(Haldru et al., 2006).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한 주목은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도되지 않은 인종주의와 선의 또는 칭찬의 모습을 한 차별을 발견하게 해 준다(최대희, 2018).

일상적 인종주의는 대표적으로 구분 짓기, 본질화, 문제화의 방식을 통하여 나타난다.[10] 대표적으로 특정한 집단을 구분 짓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구분은 종종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구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선입관을 형성하고 낙인찍는 효과를 보인다(Goffman, 1963/2018). 구분은 차별, 낙인, 그리고 배제를 통하여 작동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배려, 동정, 그리고 유머와 같은 평범한 언어와 태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본질화는 특정 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단순히 대상의 통제와 억압이 아닌 관리와 육성을 통하여 실천된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본질화는 민족 또는 인종적 특성과 문화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압축화(encapsulation)의 방식으로 나타난다(Essed, 1991). 구분 짓기와 본질화의 방식은 특정 대상을 목적이 아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대상화(objectification)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Haldrup et al., 2006). 문제화는 특정 대상을 문제의 원인이자 관리해야 하는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화의 논리는 관용의 윤리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브라운(Brown)은 자유주의하에서 관용은 정치적 담론이자 통치성의 실현으로 '우리'와 '그들'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고 주장한다(2006/2011). 관용의 원리 속에서 소수자들이 주류 집단의 기대와 허가에 순응하는 경우 승낙과 지원을 제공하지만, 승인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그들은 문제시되고 분노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일상적 인종주의를 사회적 관계이자 잠재적이고 연쇄적 혐오의 가능성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로 바라본 일상적인 인종주의를 이론화한 에세드 역시 "문화적 인종주

나(Kim, 2016)는 everyday racism이라는 개념을, Haldrup, Koefoed & Simonsen (2006)은 실용적 오리엔탈리즘(practical Orientalism)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0) 여기서 제시한 구분 짓기, 본질화, 그리고 문제화의 방식은 에세드(1991)의 연구에서 기초한다. 에세드는 일상적인 인종적 갈등이 유지되는 방식을 1) 주변화(marginalization), 2) 억제(containment), 그리고 3) 문제화(problematization)의 방식으로 분류한다(1991, p. 185).

의는 구조적 인종주의 외부에서 인식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1991, p. 186). 인종주의의 일상성은 단지 피부색을 언급하지 않고 무관심, 동정, 그리고 농담처럼 겉으로는 크게 해가 없어 보이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발화자에게는 존중과 농담의 담화가 듣는 이에게는 구분, 분리 그리고 무시의 담화로 작동하게 되고, 담화의 대상자는 실제의 공간에서나 상상의 관계 속에서 위축되거나 정상인처럼 행동해야 하는 압박감에 빠질 수 있다. 무관심은 분리와 낙인찍기로, 동정은 경시와 역차별의 논리로, 그리고 유머와 농담으로 채색된 발언은 욕설과 혐오 발언으로 변이한다. 신인종주의자들의 "농담은 단순히 농담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유머와 편견 또는 증오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특히 "민족을 대상으로 한 농담은 목표를 조롱하여 비인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Billig, 2001, pp. 269 & 279).[11] 과정이자 관계로서 신인종주의 일상성(banality)은 결코 무해하거나 비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든 "배제와 강력한 제도를 재생산할 뿐 아니라 억압과 전쟁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까지 한다(Haldrup et al., 2006, p. 176).

한국 사회에서 반다문화라 운동은 일상적 인종주의의 관계적인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문화 집단과 소수자에 대한 농담 그리고 신조어 등 다양한 종류의 "혐오표현은 약자들을 향한 언어유희 현상으로 대표되는데," "비하성 유머를 던질 때 차별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김지혜, 2019, 88-89쪽). 또한, 반다문화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으며 결혼 이주민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이해 갔다(Jun, 2019, p. 2).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의 일상성에 주목하여 "차별은 생각보다 흔하고 일상적"임을 드러내고자 한다(김지혜, 2019, 60쪽). 본문에서는 일상적 인종주의의 구분 짓기, 본질화, 그리고 문제화의 방식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보도에서 구체화되고 의미화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신인종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뉴스 담론에 주목한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제도 및 국가 정책에 중요한 기조로 떠올랐으며 학계에서도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이 형성한 다문화 가정에 주목하였

11) 빌리히(Billig, 2001)는 농담과 유머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과 담론들이 작동한다고 지적하면서 농담을 둘러싼 '메타-담론' 또는 '메타-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 언론학계에서도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주자에 대한 대중 매체의 재현양상 및 담론 형성의 특질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수정·김은이, 2008; 양은경, 2010; 황경아·이인희, 2018; 채영길, 2010; 홍지아· 김훈순, 2010; Ahn, 2012).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집중하였던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이 구성한 다문화가정이라는 이른바 다문화 1세대가 아닌 그들의 자녀, 즉 다문화 2세대에 대한 뉴스 미디어에 주목한다.[12] 동시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미디어의 전반적인 담론을 정리하기보다는 뉴스 담론 속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일상적 인종주의의 대상화되는 양상을 추적한다.

본 연구방법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보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13]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 신문사 홈페이지의 자료에서 뉴스를 수집하였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뉴스전문 검색 사이트인 카인즈(www.kinds.or.kr)를 이용하여 뉴스를 수집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기를 고려하여 2008년을 수집 기간의 시작으로 정하였으며 담론의 특성을 살펴보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년의 기간을 설정하였다(홍지아, 2010). 검색어로는 '다문화 아동',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아동', '중도입국청소년'을 사용하였고, 내용상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기사를 선택하였고 단순히 기관이나 프로그램 홍보, 그리고 단순한 행사 보도 등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기사의 수는 169건으로 신문사별로 보면 〈조선일보〉는 60건, 〈중앙일보〉는 53건, 〈한겨레〉는 24건, 〈경향신문〉은 32건이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수집된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신인종주의적인 담론이 구체화되는 양상, 재현 방식, 그리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뉴스 미디어에 반영되고 표현되는 일상적 인종주의의 담론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분 짓기, 본질화 그리고 문제화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표현, 실천되어 일상의 담화로 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을 채택하였는데, 한국 사회에서 목도되는 반다문화 및 반난민 운동과 정서 등과 호응하여 뉴스 보도가 만들어 내는 효과 및 의미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텔레비전 뉴스, 광고, 신문 기사 등의 담론적 상황들을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론이 권력과 이데올로기, 사회정체

12) 다문화 2세대에 재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인데 대표적으로 이소현(2014)이 있다.

13)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김범선, 2019)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담론의 전반적인 양상을 보여주는데, 본 연구는 동일한 연구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과 사회관계, 그리고 지식과 믿음의 체계들과 구조적으로 매개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 담론분석은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조영한, 2014, 222쪽).

다문화가족 등 소수 집단에 대한 인식 및 고정 관념은 대부분 가족, 학교, 언론의 사회화를 통하여 직접적이고 동시에 간접적으로 학습되고 형성된다. 특히 언론의 뉴스 보도는 다문화 2세대에 대한 인식 및 편견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박경태, 2009; 양은경, 2010; 황경아, 2017). 다문화 2세대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뉴스 보도를 포함한 미디어를 통하여 재현되는 양상을 통하여 자신의 인식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뉴스는 메타-담론 형성 가능. 댓글, 온라인 담화를 이끌었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손쉽게 혐오 발언으로 변이된다(Kim, 2018). 반다문화를 둘러싼 담화도 예외는 아닌데 반다문화는 온라인 공간의 혐오 발언에서 대중 정치로 제도화되거나 외국인 혐오를 자극하는 대중주의로 확장하기 쉽다(Jun, 2019). 동시에 언론의 뉴스보도는 다양한 언어, 담화를 재생산할 뿐 아니라 집단적인 정서 및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표방하는 언론의 뉴스에서도 일상적 인종주의가 보편, 상식, 그리고 습속의 언어로 발화될 수 있고, 뉴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 댓글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토론의 또 다른 차별의 언어 그리고 혐오발언으로 변이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Jeong & Cho, 2020). 본 연구는 뉴스의 현실구성 관점에서 뉴스에 재현된 인종주의의 일상성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및 언어 실천과 통합된 문맥의 연구를 시도한다.

4. 일상적 인종주의의 대상화: 뉴스 속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담론

본 장에서는 한국 뉴스 미디어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일상적 인종주의의 대상으로 담론화하는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는 구분짓기의 방식을 통하여 그들을 차별과 배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둘째는 본질화의 방식을 통하여 그들을 글로벌 인재 자원으로 호명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들을 역차별의 원인으로 삼는 등 문제화하는 방식이다. 결혼이주자 등 이주 1세대와 달리 뉴스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재현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분화되었다.[14] 하지만 배려, 가능성, 안전 등의 보편적 어휘들과 함께 구성되는 뉴스 담론은 여전히 '우리'와 '다문화'라는 틀

14) 다문화 2세대에 대한 뉴스 담론 속에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나타난다 (김범선, 2019).

속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화하고 있다. 대상화는 재현되는 객체를 일반화, 탈권능화 그리고 수동적인 주체로 위치 짓는 대표적인 방식인 동시에, 일상적인 인종주의에서는 지원, 배려, 그리고 권능화의 문법을 복제하거나 전유한다.[15] 심지어 대상화하는 주체가 피해자라는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객체에 대한 편견, 불만 그리고 차별을 정당한 권리로 사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하여 본 연구는 뉴스 미디어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에 대한 주류의 기존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문화가정, 특히 자녀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구성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뉴스 보도 형식 및 내용은 한국 사회의 변화 및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특정한 대상 또는 주제에 대한 인식, 느낌, 그리고 관념을 구성하는 도구이다. 한국 뉴스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담론이 구체화되는 양상은 일차적으로 언론의 책임이지만, 언론은 사회의 일부분으로 일상 속 사회의 의식 구조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자녀에 대한 뉴스 미디어의 전반적인 담론 양상을 정리하기보다 뉴스 미디어에 반영되고 동시에 뉴스를 통하여 구성되는 일상의 인종주의와 대상화의 양상, 재현 그리고 의미화 과정을 살펴본다.

1) 다문화의 이름으로: 구분의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일상적 인종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방식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결혼이주자 가정의 자녀들을 호명하여 구분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이들을 구분하는 여러 명칭으로 '다문화'라는 사회집단으로 구분 지어지기를 거부한다. 소수자 구별언어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국립국어원, 2010)에 따르면 소수자 구별언어(단어)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 중에 다문화 가정, 혼혈인 당사자들의 응답 중 1순위는 '단어로 분류하지 않기를'이었다[16]. 이번 절은 '다문화'의 이름으로 자녀 세대를 보호, 열등, 그리고 차별의 대상으로 구분 짓는 담화적 실천을 살펴본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문화'라는 호칭을 달고 세상에 등장하고, 사회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때마다 다문화의 새로운 무엇으로 불리게 된다. 다문화가정으로 불리는 대다수의 부부는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로 구성되는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는 부계 중심사회인 한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다문화 출생아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들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보통의 학

15) 여성혐오 현상에서도 신조어 및 유머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혐오 정서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김수아·김세은, 2016).

16) 2순위는 국제결혼가정, 3순위는 다민족국가, 4순위는 행복가족이다.

생들과 다른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불리며, 성장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 복무를 할 때도 '다문화 사병'이란 명칭을 부여받는다.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 2만2000명 중 베트남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7880명으로 다문화 출생아 중 베트남계(35.8%)가 가장 많았다. (조선일보 2012,12,15)
> 일선 군부대의 한 영관급 장교는 "다문화 가정 출신 신병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2,5,1)

다문화의 호칭에는 특정 나라 또는 지역 출신을 강조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삭둥이를 다룬 기사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인 희망이(여): 필리핀인 엄마 배 속에서 155일 만에 태어났다"(중앙일보 2016.2.12.)고 어머니 출신국가를 강조한다. 학교에서 그들을 향한 '다문화' 호명과 그 효과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유치원과 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주자들의 문화적 동질성'의 세계로부터 이동"하여 "자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김현미, 2014, 171쪽).

> 서울 동대문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이아무개양은 "종례 뒤 선생님이 '다문화 남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나도 이름이 있는데 '다문화'로 부르셨다. 선생님이 내가 마치 잘못을 했다는 듯 말씀하셔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한겨레 2017,2,28)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사용되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낯선 표현 자체가 아이들에게 매우 배제적이고 차별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최대희, 2018, 61쪽).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보도하는 뉴스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종주의의 일상화를 잘 보여준다. 동시에 학교에서 다문화라는 구분은 언론에서조차 자연스러운 담화로 여겨지는데, 이처럼 특수 집단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묶어서 호명하고,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것은 차별의 도구가 된다(설동훈, 2014). 다문화의 이름으로 불리는 다양한 호칭들, 그리고 그러한 호칭들이 반복적이고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담화 실천은 인종주의의 일상화의 전형적인 예이다.[17]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호칭은 대상을 부족한 인간으로 여기며 때로

17) 여성을 대상화하는 다양한 혐오 표현(개똥녀, 강사녀, 군삼녀, 신상녀, 명품녀, 패륜녀) 역시 여성혐오를 정형화하고 일상화시키는 기제이다(김수아, 2015).

는 자기비하를 내면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김지혜, 2019, 김현경, 2015, 정의철·정용복, 2016).[18] 주류 인종에 속한 사람들의 인종차별 행위가 의도하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고, 의도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것을 심각한 문제가 있는 행위로 보려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주류 인종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각한 차별을 느낀다. 다시 말해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고 대상화하는 구분은 의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쉽게 차별의 언어로 이어진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다르게 구분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다문화로 구분하는 담화는 자연스럽게 대상을 열등하거나 부족한 집단으로 형상화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결핍과 열등한 것으로 서술하는 뉴스는 동시에 그들을 보호가 필요한 배려와 지원의 대상으로 포장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보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자는 메시지를 보낸다.

> 가정 파탄·가난에 '버려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한겨레 2009,9,2)
> 풍차의 네 날개는 국내 4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아동, 노인, 북한 이주민(탈북자), 다문화 가족을 상징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희망풍차의 목적입니다. (중앙일보, 2013,2,6)
>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프로그램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시도가 그렇다. (한겨레, 2010,8,19)

다문화가정을 가정 파탄 또는 가난으로 묘사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고아나 찬밥 신세로 서술하는 뉴스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한국의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결핍이자 결손가정의 상징으로 낙인찍는다(조주은, 2005). 동시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및 지원을 촉구하는 뉴스는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을 사회 및 교육의 부적응자로 일반화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가정을 수식하는 언어를 보면 '가장' 소외된 계층, '대표적인 약자'로 표현하고 이들을 한국 사회가 '보듬고', '보호',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들을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19]으로 한국 사회는 '결핍'이 있는 다문화 가정을 돕는 시혜

---

18) 고프만(1963/2018)이 분류하는 낙인은 크게 1) 신체적인 혐오에서 오는 낙인, 2) 개인의 기질에서 나타나는 오점, 그리고 3)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종족 낙인으로 유형화되는데, 다문화에 대한 낙인은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19) "청와대는 이날 행사에 장애 아동과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아동과 보호자, 소년·소녀 가장 등 200여명을 초청했다." (조선일보, 2015,12,31), "이번 동계올림픽의 현장에 소외계층 500명을 초청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초청대상은 한화그룹이 지속해서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저소득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어르신 등이다."(중앙일보, 2018,2,8)

자로, 다문화 가정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수혜자임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구분과 차별의 담화는 때로는 다시 혐오발언으로 전이되는데 뉴스에서는 순화된 방식으로 실천된다. 피부색을 기반으로 한 차별 그리고 인종주의는 한국 역사에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과 더불어 서양인을 만나면서 당시 서양인의 인종 서열 의식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 급속하게 퍼져 형성된 것이다(박경태, 2009). 사회적 진화론(Social Darwinism)을 바탕으로 한 민족 자강의 논리 속에서 구미의 백인이 정점에 있고 나머지 인종을 종속적으로 여기시는 시각을 답습하였다. 한국 사회는 백인을 선망하는 인종주의로 이어지고 유사 맥인 의식은 비백인을 더 강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정의철·정용복, 2016; 황경아, 2017).[20]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국가 출신의 부모와 피부색이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반복되고 확장된다.

>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한국 아이의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깜둥이'라고 부르면, 그 자녀들도 다문화 가정 자녀를 '깜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2008,5,13)
>
> 그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유치원 가니까 '까만 애다'라고 하더라. 제가 봐도 저만 까맣더라"며 "자기와 다르다 보니 경계하거나 놀리는 경우가 많더라. 친구랑 친해져도 친구 어머니가 '저런 애랑 놀지 마!' 그러셨다. 짜장면 먹고 있으면 '까만 애가 짜장면 먹네'란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2017,12,28)

한국에서 '외국인'은 피부색이나 출신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한국에서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평가된다. 개인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열화된 인종의 층위가 대신하게 된다. 인종주의에 있어서도 언론 등 미디어는 인종적인 고정관념과 인물재현을 반복함으로써 인종에 대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할 뿐 아니라 생성한다(Omi, 1989). 한국의 인종주의는 이중성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한국보다 경제, 문화가 발전된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에게는 호감과 동경을 표하며 우월적 타자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개발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는 비호감과 동정을 표현하며 열등한 타자로 나눈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정서를 보도하는 한국 뉴스는 이러한 현상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혐오발언적인 신조어, 명칭, 그리고 유머를 반복 재생산하면서 차별과 인종주의의 틀을 재생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고모리 요이치, 2015).[21]

---

20) 정의철과 정용복(2016)은 개발도상국 출신에게는 차별의 시선을, 백인에게는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중적 인종주의'를 비판한다.

한국 사회는 이들을 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부모 출신국의 발전 수준에 따라 '결핍'과 '보호'의 대상이자 배려의 대상으로 설정하는데, 이러한 보호, 지원, 그리고 배려의 언어들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우리'가 아닌 '그들'로 설정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호명은 한국 사회에서 "'진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이 단어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순된 인식구조"를 반영한다(김지혜, 2019, 132쪽). 홍성수(2018)는 혐오표현은 소수자 일반을 지칭함으로써 성립되기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을 '다문화'라고 부른다면 그 학생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효과를 낳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문화를 특정하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뉴스보도는 이들을 일종의 무임승차자로 여기는 인식을 공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추후 능력에 기반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능력주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한국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지원을 비난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의 이름으로 담론화되는 일상적 인종주의는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낙인찍는 방식을 행한다.

2)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본질화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일상적 인종주의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작동하는 두 번째는 방식은 그들의 어머니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징에 고정하는 본질화이다.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가 및 언어를 특화하여 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지만, 개인이 아닌 집단의 특성을 통해서만 이들을 인정하는 방식은 또 형태의 대상화이자 "한정을 목표로 한 민족화(ethnization)"다(Essed, 2006, p. 204). 개별성이 인정되지 않고 언어와 문화의 특징을 전체화하는 것은 대상을 비인간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인종주의라 할 수 있다(고모리 요이치, 2015).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언어라는 재능을 가진 그리고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이중 언어능력 때문에 기사에서 다문화 2세대를 어머니 나라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글로벌 리더', 어머니 나라와 한국을 이어주고 1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중재자' '가교', '해결사' 등으로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출신 국가와 언어를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꼬리표를 다는 일(labelling)로서 차별 행위로 가는 첫걸음일 수 있다(김성윤, 2018).

---

21) 일본 사회를 분석한 고모리 요이치(2015)도 21세기 새로운 인종주의 담론이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신조어는 많은 사람들을 범주화하고 새로운 인종주의를 표상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씨가 중국말로 "어머니 고향이 어디냐"고 묻자 최양은 "지린성 쪽인데 도시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한국말로 답했다. 엄마를 통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접한 터라 듣고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 (중앙일보 2011.8.31)

다문화 자녀들의 강점은 성장배경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쉽게 터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 자산의 가치를 찾아내고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글로벌시대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2012.9.14)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2세대의 존속을 위해 이들을 전략적으로 '인적자원'으로 호명한다. 뉴스에 나온 다문화가정 자녀를 수식하는 단어를 보면 '글로벌 자산', '귀한 재원', '인적자산' '성장 동력' 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자원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군에서는 '미래의 병력자원'으로 보기도 한다.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국제화 시대에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2개 국어를 구사하는 (bilingual)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5.5)

국방부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출신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의 병력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군 차원의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12.5.1)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이 갖는 문화적, 생물학적 차이는 동화시켜야 할 열등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자원으로 간주되어 유지시키거나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기사들이 등장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가족 내의 갈등 중재자는 물론 앞으로 나타날 사회문제를 해결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산' '글로벌 인재'로 호명되며 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과 교육기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등장한다.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되던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잠재력은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로 한정되는 '이상적 소수자'(the model minority)라는 전형화의 굴레에 빠진다(이소현, 2014).

동시에 주류 사회는 소수자가 당연히 열등하거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기 때문에 이런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김현미, 2013).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학교생활과 학업에서 우수한 실력을 나타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성공'과 '모범'사례로 주목받는다. 기사에서도 다문화 가정 출신 이력과 이중언어 능력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모범' 학

생으로 호명하며 그들의 성공은 예외적인 것으로 여기는 동시에 다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따라야 할 모범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 모범 다문화 가정 초등생 3인 (중략) '다문화 가정 출신' 이력을 '한계'가 아니라 '장점'으로 승화시킨 초등생 3인을 만났다.
> 〈case1 | 언어 부문 특기 살린 반준휘군〉
> "제 꿈은 외교관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발전과 우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case2 | '이중문화' 적극 활용 안주언군〉
> 안주언(서울 신용산초 6년)군은 교내에서 알아주는 유명 인사다. 큰 키에 반듯한 용모, 우수한 성적과 리더십까지 겸비한 덕분이다.
> 〈case3 | 어엿한 '민간 외교관' 김유나양〉
> 김양은 학교에서 '우즈베키스탄 외교관'으로 통한다. 우즈베키스탄이 생소할 친구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게 그의 목적. (조선일보 2013.9.23)

한편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한국어를 잘한다',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잘하니?'와 같은 질문들은 겉으로는 차별적인 의도를 갖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을 '우리 한국인'의 주변적 위치에 두고 있다. 동시에 그들에게 한국어 구사 능력은 글로벌 인적자원을 위한 필수자원으로 여겨지는데, 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계속 질문의 대상이 되고 이를 적절히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글로벌 인재로 적합하지 않은 대상으로 회기 된다.

> 다양한 나라 출신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말 가사를 또렷하게 발음할까. 궁금증은 오래 가지 않았다. "11년이나 살았는데 당연히 우리말 쓰는 거 아닌가요?" 부모 모두 나이지리아 출신인 다니엘(11)은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걸 때가 많은데 그럴 때 '한국말 하세요'라고 답해주면 깜짝 놀란다"며 웃었다. (중앙일보 2018.2.24)

2세대의 언어능력 내용을 담은 기사의 대부분은 이중언어가 글로벌 시대에 리더가 될 수 있음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교육과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정책안에 포함된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정책의 목표를 살펴보면 "빈곤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폭넓은 언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책 지원의 주요 내용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을 통

해 이중언어 교육을 하고 이를 담당할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중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필요성을 검토와 다문화 2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보다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나 외국인을 이중언어교육을 담당할 강사요원으로 양성하는 방안이 주가 된다. 이는 국가경쟁력 확대를 위한 외국어에 능통한 이민자와 이중언어가 능통한 다문화 2세대를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조건에 한해 환대하는 '유용한 이민'이라는 담론으로 수렴된다(황정미, 2010).

한국 뉴스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결혼이주자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장점으로 살려 국가에서 원하는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로벌 인재'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하지만, '글로벌 인재 담론'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호명하는 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문화와 언어로 한정하여 "소수자에게는 '-답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의 욕망을 차단하여 고정된 이미지를 강요하고 확산"한다(정의철·정용복, 2016, 46쪽).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 인적자원으로 보는 것은 미국에서 아시아계 자녀들에게 '이상적 소수자'라는 전형화를 통하여 또 다른 인종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것과 유사하다.[22] 다수자가 허용한 틀을 통하여 다문화가정과 그들의 자녀를 호명되는 것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정해진 영역에서만 활약을 할 때만 주어지는 조건적 환대이다(김현경, 2015). 일상적 인종주의의 대상화를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 자원 등으로 잠재력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잠재력은 여전히 다문화라는 틀 속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외국인 부모의 민족적 특성에 한정시키고 일반화된다.

3) 역차별의 원인으로: (불)관용의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일상적 인종주의가 다문화가정 자녀에 작동하는 세 번째 방식은 그들을 한국 사회의 잠재적인 문제이자 역차별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주목할 지점은 뉴스가 한국 사회의 안전, 평등, 및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재고 및 사회의 대응을 요청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용의 윤리가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작동하는 방식을 유사하게 반복한다(정근식, 2013). 이를 통하여 한국 뉴스에 나타나는 역차별 담론은 여전히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보호와 지원 및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글로벌 인재 자원으로 호명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한국 뉴스의 접근은 기존의

22) 모델 마이너리티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체제에 순응적이면서 성실한 모범적 이민자라는 수사로서, 때로는 미국 내 인종차별의 본질을 희석화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계에 대한 또 다른 인종적 편견으로 작동한다 (Park, 2011).

다문화 1세대와는 다분화된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로서 그들에 대한 여전히 유효한 묘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으로 바라본다(정의철·정용복, 2016). 이러한 기사 속에서 '그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인종에 따른 차별이 아닌, 안전, 평등 그리고 자유의 이름으로 구체화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단순히 차별을 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 불만과 적개심을 키우고,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고위험군 학생으로 묘사된다.

>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한 이들[다문화가정 자녀]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도 못한 채 낙오자가 돼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을 키워 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2010.3.8)
>
> 폭력을 휘두를 위험이 큰 '고위험군' 학생을 미리 가려내 그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교육을 받도록 관련 법규를 바꾸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중략) 새누리당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생계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2.6.28.).
>
> 특히 학생[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언어 습득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진다. 그 뿐 아니라 학습부진, 폭력행동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조선일보, 2013.4.4.)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원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앞에서 그들을 열등하거나 결핍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는 차별점이 있다. 우선 이러한 관점은 한국 사회의 안전, 질서 그리고 평화를 해치지 않는 한해서는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치안적 지배의 대상, 즉 생명정치적 통치의 대상으로 두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현미, 2020).[23] 동시에 이러한 관점은 이미 발생한 범죄가 아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러나 '우리' 한국인의 상상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시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는 범죄 그리고 위험에 대한 상상은 '그들'을 '우리'와 분리하고, '우리'와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들에 대한 정서적 관여를 자극한다. 소수자에 대하여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위험을 자극하는 방식을 통하여 타인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활성화된다. 이럴 때 일상적인 인종주의는 "윤리와 정치, 주체와 권력을 연결하고 포괄하는 '진실의 체제'로서 형성되고 작동"하는데, 두려움 특히, 아직 발생

23) 김현미(2020)는 인도주의적 담론을 바탕으로 난민을 국가가 돌보고 통치하는 대상으로 고안된 것을 생명주의적 인종주의이라고 지칭한다.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곧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대감이라는 정서적인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동한다(김예란, 2020, 89쪽).

특히 잠재적인 문제로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상은 서구 사회의 선택적인 참조를 통하여 강화되고 진실처럼 유통된다(염운옥, 2019). 유럽 사회의 다문화 시도의 실패에 대한 소식 또는 선별적인 예를 기사화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잠재적인 불안은 필연적인 문제로 전이된다.

> 외국인·다문화 자녀 범죄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중도입국 자녀 문제를 외면하면 향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외로운 늑대'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고, 프랑스에서처럼 이민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6.10.13)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당연히 이념으로 여겨졌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배려는 한동안 추상적으로 선한 명제로 유통되었다. 하지만, 반(反)다문화 운동에서 시작된 역차별 논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우리 한국인'을 차별하고 있으며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뉴스는 직접적으로 반다문화 운동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역차별 담론을 재생산한다.

> '다문화'를 한 조건으로 내걸어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 저소득 가정과 또 다른 역차별 우려를 낳습니다. (조선일보, 2012, 4.10).
> 이 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다문화가정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제 현장에서 역차별 논란과 다문화에 낙인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17.6.4)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역차별 논의는 교과목, 교재, 그리고 선생님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역차별 담론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직면한 한국인 교사와 , '단일문화 학생'으로 불리는 '우리 한국인'을 염려하는 방식에서 시작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기피하는 '한국 학부모'를 정상, 규범 또는 당연한 반응으로 여기다. 주류 사회, 즉 '한국 학부모'의 분노는 소수자, 즉 다문화 가정 및 자녀에게 베푼 선의를 몰라주고 관용의 경계를 넘어선 것에 대한 분노이다(최대희, 2018).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과정을 역차별로 여

기는 교사, 부모, 그리고 학교를 문제시하기보다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그들에 대한 교육 방침을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다.

> 반면 한국 학부모들은 대동초를 기피하고 있다. 지원 정책의 초점이 다문화에 맞춰져 한국 학생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2018,10,2)
> 교과교육을 할 때 문제점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그들에게 맞췄을 때 단일문화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겨레, 2009,05,10).

또한 한국 뉴스는 이른바 '우리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도와준다'라는 반다문화 운동의 대표적인 수사를 반복 재생산한다. 금전적 그리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경향은 다문화 교육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및 세금의 문제로 시선이 옮기면서 표면화된다. 특히 신자유주의 양극화로 인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권리처럼 유통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김희경, 2017).[24] 주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공포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다문화 가정이 '비난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이 되었다.

> 일반 학부모들이 이주여성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80%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은 10%였습니다. 표면적 의식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찬성하지만 잠재적 의식에서는 절대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조선일보 2008,5,13)
> '역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만 보살피면 다른 한국 아이들이 역차별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쟤는 나하고 똑같은 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데 선생님은 쟤만 돌본다"고 느낍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하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2008,5,13)

---

24) 위기가 닥쳤을 때 위험과 타자를 관련 짓는 반응은 근대 이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어왔다. 사회심리학자 헬렌 조페(Helene Joffe)에 따르면 매독이 유럽을 휩쓸던 15세기에 매독은 영국에선 '프랑스 두창'으로 프랑스에선 '독일병'으로, 일본인에겐 '중국병'으로 불렸다. 매독뿐 아니라 집단적인 불치의 질병은 늘 '타자'와 연관되어 왔다(김희경, 2017, 158쪽).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국제결혼가정이라는 '대상'별 지원인 상황에서,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비다문화 가정에 대한 역차별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논쟁지점일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한국인'이 피해를 받는다는 논리는 반다문화 운동에서 주장하는 '국민 우선'이라는 구호와 조응하면서 인종차별적 논리를 정당화시키려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을 왜 도와주냐", '국민 우선'이라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증폭된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거부감이 확대되어 혐오나 반다문화정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아이의 체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반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김현미, 2014, 173쪽).[25] 역설적이게도 다문화가정 자녀는 대부분 부계를 통한 국적 획득의 방식으로 한국국적을 가진 이들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한국에서 거주해 온 이들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역차별'이라는 틀에서 보도하는 뉴스는 여전히 그들을 '우리 한국인'으로 구별하고, 외모와 문화적 차이를 통하여 '2등 한국인'으로 차별 짓는 일상적 인종주의를 전형적으로 드러낸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한국 사회의 문제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 언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근거로, 그리고 안전,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언어를 활용하였다. 반다문화 진영에서 활용하는 역차별 같은 담론을 다룰 때에도 관련 이슈를 "공론화했다기보다는 (중략)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과잉 담론화 또는 과잉 보도"를 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반다문화 담론의 문제를 탈정치화"하는 데 기여한다(황경아, 2017, 180 & 182쪽). 객관적 보도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뉴스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문제화하며 반다문화 논지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일상적 인종주의가 구현되는 또 하나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5. 결론: '인종주의적인 것'에 대한 사유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를 인종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고, 한국 사회 내에서 평범하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인종주의를 고찰하기 위하여 일상적 인종주의 개념을 논

25) 한국은 난민에 대하여도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2013년 독자적인 난민법 책정을 하는 등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다(김현미, 2020).

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뉴스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담론화하는 양상을 크게 세 가지, 즉 구분 짓기, 본질화하기, 그리고 문제화하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보도는 때로는 구분, 분류, 그리고 차별짓기는 언어로 그리고 때로는 보호, 지원, 그리고 관용의 언어로 구성되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인'과 '다문화'라는 틀 속에서 그들을 대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모습과 이를 보도하는 양식은 문화, 습속, 언어, 그리고 민족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 분리와 차별을 상식적인 것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신인종주의 특성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일상적 인종주의 논의를 통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인종차별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반다문화, 반난민, 그리고 반여성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신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의 지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를 둘러싼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와 언론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어떻게 발화하여야 하는지 또는 대안적인 호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뉴스와 일상 대화에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면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태도와 인식은 줄어들 수 있을까?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기에 많은 이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단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호명만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과 구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생산하는 다문화가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인 것'에 대한 성찰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한국 사회와 언론이 다문화가족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상화를 하기보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지원, 그리고 주류 집단의 성찰과 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내가, 언론이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인종주의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을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라보고, 국적, 민족 그리고 피부색과 같은 기존의 집단을 나누는 구분을 상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뉴스 및 일상의 발화자가 어떠한 발화, 태도, 행동 그리고 의식과 생각까지 일상적 인종주의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한국 사회에 '인종주의적인 것'의 범주에 대한 성찰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인종주의적인 것에 대한 사유는 생물학적이고 절대적인 구분이 아닌 한국 사회에서 시간의 변화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인종을 둘러싼 상식과 지식의 체계, 감정의 구조 그리고 담화의 양식에 주목하는 것이다(염운옥, 2019). 언론뿐 아니라 교육과 법과 같은 제도에 침투되어 어느 순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인식과 사고, 그리고 이를 통한 발화, 행위 및 관계가 인종주의적일 수 있음을 고찰하는 것이다(김현미, 2020).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인 경향은 역사적 맥락을 통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 한편으로 일본제국의 식민 지배, 해방에 이은 분단 및 냉전 체제를 거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양에 대한 인종주의적 동경과 함께 자아

에 대한 수치심 또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유선영, 2017).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수치심은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 정치적 영향력, 한류의 인기 등을 누리면서 동남아 등 비서양에 대한 과도한 우월감 및 유사 제국주의적 욕망을 투사하게 된다(조영한·조영헌, 2020). 일상적 인종주의 그리고 인종주의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내'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는 사실을 성찰하는데 기여한다(김지혜, 2019, 60쪽).

동시에 한국 사회와 언론의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는 발화의 주체와 객체였던 '우리 한국인'과 '그들 다문화'의 관계에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 인종주의적인가?' 또는 '누가 인종주의적인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인종주의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여기에서부터 변화할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한국인'만이 아니라 '그들 다문화'의 변화와 실천도 필수적이다. 다문화 또는 새로운 용어가 일상적 인종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문화가 지칭하는 대상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스스로의 호명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 속에서 의미가 인정되도록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인정받고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드러나게 할 수 있다(정근식, 2013). 어느 사회나 그리고 누구나 인종주의적일 뿐 아니라 인종주의의 일상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회구조와 무의식에 내재한 인종주의적 열등감과 우월감, 그리고 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김찬호, 2014). 한국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소수자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 및 사회에서 소수자들을 재현하고 동시에 소수자들이 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이를 통하여 한국 언론학 및 문화연구에서 인종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시작되고, 이러한 연결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변화된 인식, 태도, 행동, 그리고 발화, 그리고 행동의 전환이 조금씩 시작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Ahn, J.-H. (2012). Transforming Korea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reception of multiculturalism discourse and its discursive disposition in Korea. *Asian Ethnicity,* 13(1): 91-109.

An, T. S. (2010). *Report on the Survey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on Minority Distinguished Language.*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Balibar, E. (1991a). Preface, In E. Balibar & I. Wallerstein(Eds.),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pp. 1-13). London & New York: Verson.

Balibar, E. (1991b). Is There a 'Neo-Racism'? In E. Balibar & I. Wallerstein(Eds.),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pp. 17-28). London & New York: Verso.

Billig, M. (2001). Humour and hatred: The racist jokes of the Ku Klux Klan, *Discourse & Society, 12*(3): 267-289.

Billig, M. (1995). *Banal Nationalism.* England: Sage.

Brown, W. (2006).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ae, Y.-G. (2010).'Media's the Otherness Frames in Korea : Comparative Time Series Analysis of The Otherness Frames between Hankyoureh Shinmoon and Chosun Ilbo. *Locality & Communication,* 14(2), 205-241.

Cho, J. (2005). A 'normal family' is not normal.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16, 262-273.

Cho, Y. (2014). Migrating Sports Celebrity and Flexible Citizenship: Media Representations of Tang Yeo-so during the 2008 Beijing Olympic in South Korea and China.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27(4), 217-241.

Cho, Y. & Cho, Y.-H. (2020). *The Yellow Pacific : Multiple modernities and East Asia*. Seoul: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and Culture Center.

Choi, D.-H. (2018).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racism as 'social minorities', *Research Group for Global Korean Business & Culture,* 53-67.

Eom, H. (2016). The Main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Racism in Korea. *Comparative Korean Studies,* 24(3), 53-87.

Essed, P. (1991) *Understanding everyday racism: An interdisciplinary theor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Haldrup, M., Koefoed, L., & Simonsen, K. (2006). Practical Orientalism: Bodies, Everyday Life and the Construction of Otherness. *Geografiska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8*(2), 173-184.

Hong, J,-A.,& Kim, H. (2010). The Representation of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n Society : Analysis of TV documentary Human Theater.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4(5), 544-583.

Hong, J.-A. (2010). The Multiculturalism of Korean Newspapers in the Gender Perspective : the analysis of Kyunghyang, Dong-A, Chosun, Hankyoreh.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0(4), 644-678.

Hong, S. S. (2018). *When words hurt.* Seoul: Across Publishing Co.

Hwang, J.-M. (2010). Multicultural Education without Multicultral Citizen -An Analysis of Policy Agenda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Discourse 201*, 13(2), 93-123.

Hwang, K. A. (2017). The Paradox of Multiculturalism Reflected in Media Representation of Anti-Multicultural Discourses by Media. *Media, Gender & Culture*, 32(4), 143-189.

Hwang, K. A., & Lee, I. H. (2018). Topographic Change in Media Representation of Multicultural Discourses of 〈Chosun Ilbo〉 and 〈Hankyoreh〉 Newspaper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11(1), 85-119.

Jeong, H. & Cho, Y. (2020). Banal Misogyny: Inventing the Myth of "Women Cannot Drive" and its Online Hate Speech in South Korea, In M. K. Kang (Eds.), *Hate speech in Asia and Europe* (pp. 43-58). New York(State): Routledge.

Jun, E. (2019). "Voices of ordinary citizens": *ban damunhwa* and its neoliberal affect of anti-immigration in South Korea, *Critical Asian Studies*.

Jun, E. (2020). "Accidental Solidarity in the Essentialization of the Other" : The Gendered Politics of Ban Damunhwa and Anti-Refugee Sentiments in South Korea. Economy and society, (3), 360-401.

Jung, E., & Jung, Y. (2016). Representation of Multicultural Issues and Immigrants' Media Use, Social Relations and Identity : Focusing on International Marriage Women's Voice in Jeju.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4), 39-67.

Keevak, M. (2011). *Becoming yellow.*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m, B. S. (2019). A Study on Changes in Media Discourse for '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MA Thesis, Hankuk Univesity of Foreign Studies

Kim, C. H. (2014). *Humiliation: Emotional sociology of humiliation and dignity*. Seoul: Moonji Publishing Co,.

Kim, H. J.(2017). Exploring Stereotypes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of Immigrants living in Korea. *Media, Gender & Culture*, 32(2), 125-173.

Kim, H. K. (2015). *Human, Place, Hospitality.* Seoul: Moonji Publishing Co,.

Kim, H. K. (2017). *Strange-normal family.* Seoul: Dongasiabook.

Kim, H. M. (2013). *We're all a little stranger*. Paju: Maybooks.

Kim, H. M. (2014). *We all leave home: To live as immigrants in Korea*. Paju: Dolbegae

Kim, H. M. (2020). How do people make refugees racialization?. In K. N. Kim(Eds.), *Refugees, being subject to refugeeism* (pp. 278-303). Seoul: Galmuri Publishing Co,.

Kim, J. (2018). Rumors, Hatred,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Unpacking Rumors About Jasmine Lee,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10(4), 641-656.

Kim, J. H. (2019). *A Good Discriminator*. Seoul: Changbi Publishers.

Kim, J.-S. (2011). The Critical Study of 'Korean style' Multiculturalism as Welfare Policy Excluding Citizenship. *Economy and society,* 92, 205-246.

Kim, S. A. (2015). Misogynistic Cyber Hate Speech in Korea. *Issues in Feminism,* 15(2), 279-317.

Kim, S. A., & Kim, S. E. (2016). 'Dys-like-phoria'- Representation and Recharacterisation of 'Misogyny' through Facebook. *Media, Gender & Culture*, 31(2), 5-44.

Kim, S. J., & Kim, E,-Y. (2008). Media Discourse on Asian Women's International Marriage - The Korean Cas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385-426.

Kim, S. Y. (2018). "We don't discriminate": Gender Equalism and Anti-Discrimination as an evolving hate discourse. *Culture/Science,* 93, 83-119.

Kim, Y, R. (2020). *Affect and its voice*. Seoul: Culturelook.

Kim, Y. (2016). Diasporic daughters and digital media: 'willing to go anywhere for a while,' *Cultural Studies*, 30(3), 532-547.

Kim, Y. O. (2007). Emergence of 'New Citizens' and Multiculturalism Discourse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Women*, 46(2), 129-159.

Komori Yoichi. (2006). *Racism.* Tokyo: Iwanami shoten.

Lee, J.-I. (2012). An Analysis of Cases of Korean Racial Prejudice.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19(4), 95-120.

Lee, S. (2014).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on TV: The Inclusion and Exclusion of Diasporic Identities. *Media, Gender & Culture,* (29), 5-36.

Levmore, S. X., & Nussbaum, M. C. (2010). Objectification and Internet Misogyny Levmore, In S. X. Levmore, & M. C, Nussbaum (Eds.), *(The) offensive internet :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pp. 117-146).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Noble, G. (2005). The discomfort of strangers: Racism, incivility and ontological security in a relaxed and comfortable nation,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26(1), 107-120.

Omi, M. (1989) In Living Color: Race and American Culture, in A. Ian., & J. Sut.(Eds.), *Cultural politics in contemporary America*(pp. 111-122).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ark, G. C. (2011). Becoming a "Model Minority":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Enactment of American Identity for Korean Immigrant Students. *The Urban Review*, 43(3). 620-635.

Park, K. T. (2009). *Racism.* Seoul: Chaeksesang.

Park. C. (2012). A Study on Criticism and Political Subject of Multi-culture Realities in the Korean Society. *Mission and Theology*, 29, 13-56.

Seol, D.-H. (2014).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and National Identity :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s Self Identification of Koreanness with Regard to Ethnic and Civic Nationhood in South Korea. *Ecomomy and society,* 103, 278-312.

Shin, J. Y. (2020). Opening - 'Limits-Contact' of the encounter. In K. N. Kim(Eds.), *Refugees, being subject to refugeeism* (pp. 7-29). Seoul: Galmuri Publishing Co,.

Tikhonov, V. (2016). Social Darwinism as History and Reality: "Competition" and "The Weak" in Early Twentieth-Century Korea, *Critical Asian Studies*, 48(3), 315-337.

Yang, E.-K. (2010). Ethnic Return Migration and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Hierarchical Nationhood : The Case of 'Korean-Chinese' Discourse on Chosun-Ilbo.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4(5), 194-237.

Yeom, W. O. (2019). *A History of Racialized Body: From Black to Refugee.* Paju: Dolbegae.

Yoo, S. Y. (2017). *Colonial Trauma: Searching for the Origin of the Contemporary Anxiety*. Seoul: Purunyoksa.

최초 투고일 2020년 12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1년 1월 29일
논문 수정일 2021년 2월 5일

부록

김범선 (2019). 〈'다문화 2세대'에 대한 언론 보도 담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윤 (2018).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진화된 혐오 담론으로서 젠더 이퀄리즘과 반다문화. 〈문화과학〉, 93호, 83-119.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권 2호, 279-317.

김수아·김세은 (2016). '좋아요'가 만드는 '싫어요'의 세계: 페이스북 '여성혐오' 페이지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1권 2호, 5-44.

김수정·김은이 (2008).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43호, 385-426.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권 2호, 129-159.

김예란 (2020). 〈마음의 말: 정동의 사회적 삶〉. 서울: 컬처룩.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92권, 205-246.

김지혜 (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서울: 창비.

김찬호 (2014).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김현미 (2013). 〈우리 모두 조금 낯선사람들〉. 파주: 오월의봄.

김현미 (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파주: 돌베개.

김현미 (2020). 어떻게 국민은 난민을 인종화하는가?. 김기남 외 (편), 〈난민, 난민화되는 삶〉 (278-303쪽). 서울: 갈무리.

김희경 (2017). 〈이상한 정상가족〉. 서울: 동아시아.

김희정 (2017). 한국 거주 이주민 출신국에 따른 고정관념의 탐색. 〈미디어, 젠더 & 문화〉, 32권 2호, 125-173.

박경태 (2009). 〈인종주의〉. 서울: 책세상.

박천응 (2012).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선교와 신학〉, 29권, 13-56.

설동훈 (2014).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경제와 사회〉, 103호, 278-312.

신지영 (2020). 여는 글 - 마주침의 '한계-접점'에서. 김기남 외 (편), 〈난민, 난민화되는 삶〉 (7-29쪽). 서울: 갈무리.

안태숙 (2010). 〈소수자 구별언어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

양은경 (2010).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성: '조선일보'의 조선족 담론 분석.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194-237.

엄한진 (2016). 한국사회 인종주의 현상의 주요 양상과 특징. 〈비교한국학〉, 24권 3호, 53-87.

염운옥 (2019). 〈낙인찍힌 몸: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 된 몸의 역사〉. 파주: 돌베개.

유선영 (2017). 〈식민지 트라우마: 한국 사회 집단 불안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푸른역사.

이소현 (2014). TV 속의 다문화가정 2세: 이산적 정체성의 포섭과 배제. 〈미디어, 젠더 & 문화〉, 29권 1호, 5-36.

이종일 (2012).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인종편견 특성. 〈사회과교육연구〉, 19권 4호, 95-120.

전의령 (2020). 타자의 본질화 안에서의 우연한 연대: 한국의 반다문화와 난민 반대의 젠더정치. 〈경제와 사회〉 125권, 360-401.

정의철·정용복 (2016). 다문화 재현과 이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및 정체성: 제주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4호, 39-67.

조영한 (2014). 월경하는 아시안 스포츠 셀러브리티와 유동적 시민권: 한국과 중국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지〉, 27권 4호, 217-241.

조영한·조영헌 (2020). 〈엘로우 퍼시픽: 다중적 근대성과 동아시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조주은 (2005). '정상가족'은 정상이 아니다. 〈여성과 사회〉, 16호, 262-273.

채영길 (2010).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4권 2호, 205-241.

최대희 (2018).'사회적 소수자'로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과 인종주의,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53-67.

홍성수 (2018). 〈말이 칼이 될 때〉. 서울: 어크로스.

홍지아 (2010). 젠더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언론의 다문화 담론. 〈언론과학연구〉, 10권 4호, 644-678.

홍지아·김훈순 (2010).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TV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544-583.

황경아 (2017). 반다문화 담론의 부상과 언론의 재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반다문화 관련 기사에 대한 텍스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권 4호, 143-189.

황경아·이인희 (2018). 다문화 담론 지형의 변화와 언론의 재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다문화 관련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연구〉, 11권 1호, 85-119.

황정미 (2010).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한국의 다문화교육 아젠다에 대한 고찰. 〈담론201〉,

13권 2호, 93-123.

Brown, W. (2006).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승철 (역) (2010).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서울: 갈무리.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윤선길·정기현 (공역) (2018). 〈스티그마: 장애의 사회와 사회적응〉.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Keevak, M. (2011). *Becoming yellow.*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효석 (역) (2016). 〈황인종의 탄생: 인종적 사유의 역사〉. 서울: 현암사.

Levmore, S. X., & Nussbaum, M. C. (2010). *(The) offensive internet :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김상현 (역) (2012). 〈불편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인가?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의왕: 에이콘.

小森陽一. (2006). *レイシズム*. 東京 : 岩波書店. 배영미(역)(2015). 〈인종차별주의〉. 서울: 푸른역사.

국문초록

한국의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한 고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담론을 중심으로

김범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코레아노폰 연구센터 연구원)
조영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교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되고 상식과 규범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일상적인 인종주의(banal racism)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뉴스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형성하고 있는 차별, 구별 그리고 배려의 담론을 인종주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보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신인종주의적인 담론이 구체화되는 양상, 재현 방식, 그리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목도되는 반다문화 및 반난민 운동과 정서 등과 호응하여 뉴스 보도가 만들어 내는 효과 및 의미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로 한국 뉴스 미디어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일상적 인종주의의 대상으로 담론화하는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구분짓기의 방식을 통하여 그들을 차별과 배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결혼이주자 가정의 자녀들을 호명하여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는 본질화의 방식을 통하여 이들을 글로벌 인재 자원으로 호명하는데, 그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특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셋째는 그들을 한국 사회의 잠재적인 문제이자 역차별의 원인으로 삼는 등 문제화하는 방식인데, 한국 사회의 안전, 평등, 및 자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 지원 및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보도는 구분, 분류, 그리고 차별짓기의 방식을 보호, 지원 그리고 관용의 언어로 구성하지만, '우리 한국인'과 '다문화'라는 틀 속에서 그들을 대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모습과 이를 보도하는 양식은 문화, 습속, 언어, 그리고 민족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 분리와 차별을 상식적인 것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신인종주의 특성이 있다. 일상적 인종주의 논의를 통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인종차별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반다문화, 반난민, 그리고 반여성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신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의 지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핵심어: 신인종주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일상적 인종주의, 반다문화